

# 기상청, 금융감독원·한국은행과 협력하여 공동 '기후 스트레스 테스트' 실시 추진

- 기상청, 금융감독원·한국은행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추정

기상청(청장 이미선)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, 이를 활용하여 공동 '기후 스트레스 테스트' 를 실시할 예정이다.

## 1. 개요

□ 기상청은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기후 시나리오\*를 개발하고, 이를 활용하여 공동 '기후 스트레스 테스트' 를 실시할 예정이다.

\* 가뭄,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(물리적 리스크) 및 탄소 감축 정책 강화 등에 의한 전환비용 등 기후변수와 경제·금융변수로 구성된 시나리오

○ 기상청의 기상·기후에 대한 전문성,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술,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감독 역량이 결합하여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.

○ 아울러 금융회사 자체 '기후 스트레스 테스트' 수행을 권고\*하여,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인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기대함.

\* 약식 분석 서식을 제공하여 기후리스크 분석 체계 미비 금융사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

○ 종전 「2024-2025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」에서 2050 탄소중립 경로 등 장기(30년 이상) 시계 영향을 살펴본 것과 달리, 금번에는 향후 5년 이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·정책 영향에 집중할 계획임.

[참고] '기후 스트레스 테스트' 개념 (상세 내용 [붙임 1] 참조)

- '기후 스트레스 테스트' 는 “기후변화 대응 비용(자연재해 대응 및 저탄소 전환) 발생 → 기업 수익성 악화 → 금융회사 여신 손실” 등의 과정을 계량화한 기후리스크의 측정 수단

## 2. 공동 ‘기후 스트레스 테스트’ 실시 방안 및 기대효과

---

- 기상청은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\*하고,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 개발 시나리오 하에서의 금융회사 영향을 측정할 계획임.

\* 한국에너지공단 연구진, 보험연구원, 보험개발원, 주요 금융사 소속 기후 전문가 그룹도 참여

- 기상청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은 5년(~'30년) 내 가뭄 등 이상기후 심화 및 탄소 감축 정책\*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액, 국내 총생산(GDP) 및 물가 등 경제·금융변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배포 예정임.

\*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

- 금융회사는 시나리오상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액, 기업 탄소배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출 손실 및 보험 손해를 등을 측정하고,
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손실을 측정한 후, 그 결과를 금융회사 결과와 비교·분석하여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임.

## 3. 향후 계획

---

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공동 ‘기후 스트레스 테스트’ 를 통해, 금융 안정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.

- 금융회사의 녹색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전환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,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하고,

- 아울러, 기후리스크 측정기법 등을 공유하는 금융사 대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,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.

- 한편, 기상청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은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상호협력\*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.

\* 기후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후 시나리오 제공의 정례화 등





## 붙임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및 ‘기후 스트레스 테스트’ 개요

담당 부서	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	책임자	팀 장	김지현 (042-481-9600)
		담당자	사무관	심성보 (042-481-9602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	책임자	팀 장	황재학 (02-3145-8170)
		담당자	선 임	김현진 (02-3145-8194)
<공동>	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	책임자	팀 장	이대건 (02-750-6868)
		담당자	과 장	연정인 (02-750-6898)



- (금융리스크) 기후리스크는 크게 전환 리스크(Transition Risk) 및 물리적 리스크(Physical Risk)로 구분 가능하며,
-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·시장·운영·보험 리스크 등 다양한 금융리스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

[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예시 ]

리스크 유형	물리적 리스크 요인(예시)	전환 리스크 요인(예시)
신용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화재 등 발생으로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 등	• 고탄소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부도율(PD)·손실률(LGD) 상승 등
시장 리스크 	• 잦은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국가 경제 기반 약화로 국채주식 가격 하락 등	• 화석연료 생산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 급락 등
운영 리스크 	• 극심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본지점 업무 중단 등 영업 연속성에 영향	•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평판 훼손 등
보험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물적 피해 증가로 보험금이 준비금을 초과 등	• 고탄소 기업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격 조정 등

- (개요)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상기후 및 저탄소 전환의 영향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, 동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을 분석
- 이상기후 영향은 자연재해 피해액 및 극한기후의 성장·물가 영향 등, 저탄소 전환은 전환비용의 실물 경제 파급 영향 등을 측정

<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요 >

